익산 농업기계박람회 성료

첨단 스마트농기계 미래농업 펼쳐… 국내외 195개사 참여 · 40여기종 전시

'2023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최신 농업기술을 접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31일부터 나흘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 전국 각지에서 14만여 명이 참관했다.

특히 박람회 기간동안 2만2천여건의 상담이 이뤄지면서 이중 약 18억원의 계약으로 성과를 올려 참여업체의 즐거움을 자아냈다.

10년 만에 익산에서 개최된 농기계 박람회는 국내외 농기계 기업 195개사가 참여해 400여 최신 기종 농기계를 전시했다. 자율주행 농기계부터 소형 방제기까지 첨단 미래기술 농기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농기자재 상담과 계약을 위한 참관객들의 관심과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익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구간별 교통통제, 임시주차장 확보, 주변 환경정비 등 성공적인 행사 진행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 익산 관광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관, 시설원예 수출 활성화 세미나, 참관객 경품 추첨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박람회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박람회 기간 전후로 지역 숙박업소와 시내 음식점도 활기를 되찾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상당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성공적인 박람회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대단지 아파트 입주 시작… 인구 지키기 '총력'

익산시, 인구감소 폭 완만… 2025년까지 1만여 세대 주택 연이어 공급

익산시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대단지 공동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펼치며 인구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익산 푸르지오 더퍼스트(674세대)가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익산시 인구 감소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에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여 간 428명(236세대)이 입주했으며, 이 중 익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입한 인구는 1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익산시는 앞서 인근 지자체에 비해 부족했던 대단지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힐스테이트 익산(454세대) △제일 풍경채 센트럴파크(1,566세대) △자이 그랜드파크(1,431세대) △안단테 익산평화(1,382세대) 등 대단지 입주가 가까운 시일 내 예정돼있는 만큼 '익산시 인구 30만 회복'으로 향하는 길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완주 삼봉지구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 입주 시기마다 인구 증가가 활발히 이뤄졌던 점에 미뤄 볼 때, 익산시 역시 대단지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 곳곳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의 변화는 유동 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중앙동 원도심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뉴딜 거점 시설 1호인 청년시청과 중앙동 문화예술의거리, 음식식품교육문화원(계화림, 청년공유주방), 중매서 커뮤니티센터, 글로벌문화관 등이 조성돼 전국적 본따르기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귀농 · 귀촌인 재능기부로 따뜻한 情 나눈다

군산시가 이달부터 귀농·귀촌인의 지역주민 간 화합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재능 기부단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인 재능 기부단은 군산지역 농촌으로 전입해온 귀농·귀촌인들이 본인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마을에 기부해 지역민과의 어색한 분위기를 지우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화합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재능 기부단 활동은 농촌 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내 귀농·귀촌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재능기부 활동은 귀농·귀촌인 동아리인 '그리다, 村' 동아리의 마을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발효식품제조연구' 동아리의 마을경로당에 된장, 고추장 등 기부활동, 시 귀농·귀촌 협의회 회원의 고령화된 농촌 마을 주민 대상 칼 갈이 봉사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처럼 농촌 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발효식품 기부, 농촌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칼, 가위, 낫 등을 갈아주는 칼 갈이 재능기부 활동 등의 재능기부단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는 6일 군산월명 실내체육관에서 제13회 군산시늘푸른학교 문해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통 ·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 되길"

제13회 군산시늘푸른학교 문해 한마당 성료

군산시는 6일 군산월명 실내체육관에서 제13회 군산시늘푸른학교 문해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해 한마당은 시의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을 통해 각 읍면동에서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학습성과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신영대 국회의원, 이현웅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학습자 및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과 2부 어울림 한마당으로 나눠 진행됐다.

기념식은 부안 바래청춘학교 문해학습자들의 소북 난타 공연과 미장하나어린이집 원생들의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학습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시청, 문해교육 유공자 시상, 학습자 단체 율동 순으로 진행됐다.

어울림 마당에서는 학습 단계별로 구성된 5개 팀의 학예발표회 후 초성게임, 풍선 넘기기, 촛불 끄기 등의 명랑운동회를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함께 즐기며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3년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및 학습 단계별 활동 작품을 전시하는 한편 문해 학습자들의 디지털 능력 향상을 위해 키오스크 체험존을 마련해 키오스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키오스크로 카페에서 음료 주문하는 연습을 해 볼 수 있도록 해 학습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문해 한마당을 통해 같은 배움의 길에 있는 학습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사업 확대 추진

군산시가 도심 자투리땅을 도시텃밭으로 조성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도심에 시민들의 심리치료와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22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친 일상에서 쌓인 피로감을 덜어내고 삶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텃밭은 자투리 공간 및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모드니 직업적응훈련센터,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 구세군 군산 목양원, 엘림통합복지센터), △공공주거시설 1개소(나운주공4차아파트), △어린이집 1개소(성모어린이집)다.

해당 텃밭에는 시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를 투입해 참여 단체와 함께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고, 모종 심기부터 마요네즈를 활용한 친환경살충제 만들기,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팜파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물류 서비스 행안부장관 우수상 수상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다이로움 디지털 물류서비스' 사례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구축한 다이로움 디지털 물류서비스는 전국 최초 공동 농촌 물류 체계로, 농촌 생활 물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클라우드 기반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 농가마다 물품을 순회 방문 수거해 거점센터에 집결시키면 택배사가 인도하는 식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물류 체계로 신선한 농산물을 배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농촌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 과소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할 전략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익산형 스마트도시 디지털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빈대관련 사전 위생점검 예방강화 실시

군산시가 안심하고 숙박업소, 목욕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일부 타 지역의 찜질방 등에서 빈대가 발견됨에 따라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취약한 112개소의 숙박업소(63개소) 및 목욕장(49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청소 등 청결 여부, 침대보?수건? 가운 및 대여복 제공 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빈대정보집도 업소 등에 배부해 상시 빈대 발생 예방과 신속한 방제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진숙자 위생행정과장은 "최근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일부 지역의 숙박업소, 목욕장 찜질방 등에서 빈대가 발생되어 업소들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